

광산구, 외국인 주민 코로나19 전수검사

광주·전남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광주 광산구에서 외국인의 확진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선제적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전남에서는 최근 개인사찰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지역감염이 잇따라 발생, 방역당국이 촘촘한 방역막을 구축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광주시는 18일 "최근 광주지역 2개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4명과 효

정요양병원 직원과 가족 9명 등 우즈베키스탄인 1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최근 외국인의 확진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광산구의 유학생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선제적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광산구 보건소는 이날부터 23일까지 1만3천79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대학교 유학생 1천922명, 외국인 근로자 5천702명, 고려인마을 5천455명 등이다.

검사의 편의를 위해 남부대학교와 고려인마을, 평동공단, 하남공단 등 4개소에 선별검사소를 설치한다.

또한 방역당국은 다음달 중 광주 광산구 보건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 병원에는 30병상의 규모로 16명(의

사 1·간호사 13·직원 등 2)의 인력이 배치된다.

전남에서는 영암 도포면 소재 마을과 관음사, 강진 흥덕사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전수검사가 이뤄졌다.

특히 영암에서 고구마 농장을 운영하는 광주 거주자가 영암군 도포면 소재 마을 전수검사소에서 지난 16일 양성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고구마 농장에서 근무 중인

1만3천여명 대상 선별검사소 4곳 설치도 광주보훈병원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예정

중사자 17명을 전수 검사를 실시한 결과 외국인 근로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15명은 음성 판정받아 자가 격리 조치됐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영암군에서 농업과 관련해 종사 중인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수 검사에 나서 방역을 강화하고 있으며, 도내 산단 등에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 12월29일부터 이달 1월15일까지 관음사, 흥덕사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진단검사를 받도록 의무화된 행정명령을 긴급 시행했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전남 지역에서 개인 사찰을 중심으로 한 지역 감염 급증으로 지역사회로의 전파가 우려된다"며 "경각심을 늦추지 않고 모든 행정자원을 총 동원해 전파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정겨울·임후성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피기환승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연합뉴스

이재용,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국정농단 파기환승심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열린 파기환승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건넸다가 돌려받은 말 '라우싱' 물수를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영장이 발부돼 법정 구속됐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나

마 승계 작업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했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또 "삼성 준법감시위는 일상적인 준법감시 활동과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위법 행위 유형에 대한 준법감시 활동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행동을 선제적으로 감시하는 활동까지 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승 판결의 취지를 따른 것이다. /연합뉴스

▶1면 '대선 조기점화...서 계속

이 대표와 대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는 29일 광주시가 개최하는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착공식'에 참석한다. 이 지사는 이날 이용섭 광주시장과 면담을 갖는데 이어 광주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최근 상승세인 호남 민심 챙기기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세대교체를 화두로 차기 대권 출마 각오를 밝혔던 호남(전북 장수) 출신의 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도 20일 1박2일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해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다.

아래에서도 수도권 민심에 큰 영향력이 있는 호남 잡기 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다. 적극적으로 호남 민심을 공략하는 국민의힘은 호남을 제2의 지역구로 '호남동행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명질전에 광주를 찾겠다는 계획이다.

도, 무안국제공항 '고속철 정차역' 설치 착수

지방공항 중 유일하게 고속철 정차...공항 활성화 기대

호남고속철도 2단계 고막원-무안국제공항-목포간 신설노선 추진에 따라 무안국제공항 고속철도 정차역 설치 공사가 본격 착수된다.

무안국제공항 고속철도 정차역은 전국 14개 지방공항 중 유일하게 고속철도가 정차하고 여객청사 접근성과 이용객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공항 지하에 설치된다. 특히 입체 동선 구성 등을 통한 세계적인 철도역사로 건설돼 지역 랜드마크로서 공항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국가철도공단과 관련 지자체(나주, 무안, 함평)로 구성된 '지원 협의체'를 운영해 토지 보상, 민원 해결 등 행정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호남고속철도 개통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2023년 개통될 목포-부산간 남해안 고속철도 개통 시기에 맞춰 이 노선이 무안국제공항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연결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사업이 완료되면 수도권에서 무안국제공항까지 1시간50분대, 부산-경남권에서도 당초 6시간30분에서 4시간이 단축된 2시간대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무안국제공항의 이용 범위가 수도권은 물론 남해안권까지 확대돼 이용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철원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앞으로 호남고속철도 정차역이 설치되면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무안국제공항이 전남만의 공항이 아닌 대한민국 대표 관문공항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광주매일신문,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 대상사 선정

호남 최초로 융복합 미디어를 구현한 광주매일신문이 2021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 대상사로 선정됐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지발위)는 18일 올해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 대상사로 광주매일신문을 비롯 전국 일간지 29개사와 주간지 48개사 등 총 77개사를 선정, 발표했다.

올해로 창사 30주년을 맞은 광주매일신문은 지난 2010년, 2011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9년, 2020년에 이어 우선지원대상 회수를 9회로 늘리며 명실상부한 호남의 대표신문으로 우

택 됐다.

광주매일신문이 우선 지원대상사로 선정된 것은 '정론직필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지역민의 신문'을 기치로 호남지역 신문사 최초로 종이신문과 TV를 융·복합, 디지털 미디어를 선도하는 등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미디어 모형을 구축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광주매일신문은 이번 우선지원대상사에 선정됨으로써 지역신문발전기금으로 운용되는 각종 사업에 우선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면쇄신은 물론 기획취재 지원, 영상콘텐츠제작 지원, 연수교육사

업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한층 경쟁력을 높여 호남 대표 정론지로 거듭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다음은 우선 지원대상 일간지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경기일보, 경남도민일보, 경남신문, 경남일보, 경북매일, 경북일보, 경상일보, 경인일보, 광남일보, 광주매일신문, 광주일보, 국제신문, 매일신문, 무등일보, 부산일보, 영남일보, 울산매일, 인천일보, 전남매일, 전남일보, 전라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북일보, 제민일보, 중도일보, 중부매일, 충청투데이. /박희중기자

광주시, 올해 노후 공동주택 시설 개선 확대

20년 경과 대상...사업비 32억 투입

광주시는 18일 주거환경에 열악한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 개선 사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3억원 증액된 32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게 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각 자치구에

서 다음달 초까지 사업별 수요조사 후 시설 개선이 필요한 단지로부터 신청 받은 후 심의를 거쳐 단지를 선정하게 된다.

사업 대상은 준공 후 20년이 경과되고 전용면적 85㎡이하 공동주택으로 ▲노후 중소형아파트 시설 개선(사업비 27억원)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근무환경 개선(4억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지

원(1억5천만원) 등을 추진한다.

노후 중소형아파트 시설 개선 사업은 단지 내 옥상방수, 주차장 포장, 균열 보수, 오·폐수 관로 교체 등 공용 부분의 시설 개선을 나눈 시행한다.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이번 사업으로 노후된 공동주택의 입주민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편안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해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진탄기자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 사랑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 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부실 채권 못 받은 돈 회수 전문

판결문, 공증, 공사대금, 각서 계약서, 임금내역, 각종 채권상담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채무자 재산, 신용, 주거래은행, 차량 등 파악 실거주지 파악,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연락두절 채무자 파악 개인 법인 신용조사 재산조사만 별도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원모집 신입·경력사원
영업팀 / 채권추심팀
▶지사오픈 상담▶

호남지사 062-417-4717 / 010-3602-6324
(주)제이엠신용정보
채권추심 전문법인

부동산경매 기초부터 전문가까지 완성

법학박사 장윤환

- 경매전문 "법률사무소 한우리" 법무실장
- 조선대평생교육원 "부동산경매과정" 전담교수
- 부동산공인중개사협회 실무교육 강사
- 호남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 전남 교육연수원 "자산관리와 생활법률" 강사
- ※부동산경매 더 이상 실전강의는 없다※
- 부동산경매 사고방지를 위한 관련법률(판례)
- 부동산 신중사기 대처법과 함정물건 특수분석
- ※수강후에도 동호회 가입으로 지속적인 정보교류※

부동산경매 이론과실무 (기초과정 부터 전문가과정)		부동산경매 사관학교 (최고전문가과정)	
시간	매주 화요일 주간) 15:30~17:30 야간) 19:00~21:00	매주 목요일	야간) 19:00~21:00
수강료	15주 : 220,000원	15주 : 250,000원	
개강	2021. 03. 02. 화요일	2021. 02. 04. 목요일	
접수	2021. 01. 18. - 2021. 02. 25. 까지		
접수처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행정실 또는 인터넷접수		
대상	1.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나 자신이 없는 분 2. 부동산 관련 법률용어조차 전혀 모르신 분 3. 기본적인 상식만으로 경매에 종사하고 계신 분 4. 경매전문가로서 더 깊은 권리분석을 원하신 분 5. 노후대책 및 업종변경을 위한 부동산 재테크		

조선대학교평생교육원
수강신청 062)230-7700~2 (인터넷신청)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 컴퓨터
- FAX
-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 전산소모품
- 레이저(토너/드럼)
- 카트리지
- 각종 잉크류
- 복사용지
- 팩스용지
- 판매
- 임대
- A/S

T.375-5880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가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문의 062)222-1095, 1096